

[ 종합 ]

제명된 김남일 광주시의원

“승계자 없음” 선관위 확정

개인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남일 광주시의원(민·비례)이 시의회로부터 제명된 데 따라 발생한 공석은 채워지지 않게 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3순위로 추천됐던 후보자가 지난 3월21일 탈당했다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적변경 통보에 따라 등록 무효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제명의결된 김남일 전 의원(비례 2순위)의 퇴직으로 생긴 빈 자리는 이번 지방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채워지지 않게 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정원이 3명이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명부도 3순위까지만 후보로 등록됐다”며 “3순위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돼 김 전 의원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공천 미끼 돈 챙긴 김옥희씨

김윤옥 여사 친언니 행세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고 30여원을 받아 쟁긴 혐의(특정기부금 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4)씨는 돈을 건넨 김윤옥 서울시 버스조합이사장에게 김 여사의 친언니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김옥희 씨를 김 여사의 친언니인 줄 알고 공천을 부탁했지만 결국 공천되지 못했고, 나중에 친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브로커인 또다른 김모 씨를 1일 구속했다.

김씨 등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여원을 받았다 이후 25여원을 돌려줬으며, 5여원은 대부분 회사 운영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독도 갈등, 주권국끼리 풀어야”

부시, 불개입 원칙 밝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분쟁의 해결은 주권국가 정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일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내주 한국, 태국, 중국 순방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아시아 순방국 인턴들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미국 입장에서 아시아 지역국가들과 좋은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국가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북돋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위해서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핵검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 /연합뉴스

한국 풍토 잘맞는 차나무 나왔다

농진청 목포시험장, 목포 1, 3호 농가 보급 나서

기존 일본 품종보다 타닌·카테킨 등 함유 풍부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이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2종류의 차나무를 육성했다고 1일 밝혔다.

목포시험장은 일본산 차나무보다 추위와 병에 잘 견디는 국산 차나무 품종 ‘목포 1호’와 ‘목포3호’를 육성, 내년 농가 보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육성된 목포1,3호는 국내 재래 차나무 중 우수 유전자원을 선발해 육성했으며 항암·항균효과에 플라스테롤 감소 효과를 지닌 차의 대표적 기능성 성분인 ‘타닌(tannin)’과 ‘카테킨(Catechin)’이 기존 품종보다 많이 함유돼 녹차뿐만

아니라 발효차 제조에도 알맞은 품종이다.

특히 목포1,3호는 차 맛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 함량 역시 많이 뛰으면서도 마지막엔 깔끔한 맛이 일품이라고 목포시험장은 밝혔다.

목포시험장은 이번에 육성한 2개 품종을 연말 품종 출원을 마친 뒤 내년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해마다 2개 정도의 신품종 차나무를 육성, 보급할 계획이다.

목포시험장 송연상 연구사는 “국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본산 차나무의 경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이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게 육성한 차나무 품종인 ‘목포1호’.

우 내한성이 부족해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에 육성된 품종은 우리 기후에 맞게 개량돼 차 재배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성기자 sslee@kwangju.co.kr



“와! 자기부상 열차다” 대한민국 과학 축전 개막

1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에서 어린이들이 자기부상 열차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32개 정부 출연기관과 90개 초·중·고교 등 총 1천639개팀 8천375명이 참가해 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故 박왕자씨 100m 이내서 피격당해”

합조단, 금강산 피격 모의실험 결과

정부는 1일 북측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 “총격은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여온 정부합동조사단(단장 황부기)의 김동환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진행된 모의실험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북측의 주상대로 박씨가 주종중이었다면 거리는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며 “고인이 피격 당시 정지하고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북측 주장의 문제점을 밝히고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박씨와 신체조건이 유사한 50대 여성을 통한 산책시 이동거리 소요시간, 사격 거리와 방향, 사건 발생 시간대 사물 식별 가능여부, 총성 등 5가지를 실험했다.

김 실장은 총격 횟수 및 시간과 관련, “총성의 형태로 봐서 최소 3발은 쏘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전 5시16분 이전으로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개 유전자변형농산물 성분 확인방법 없어

감사원은 29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품종에서 GMO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이들 품종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더라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산물 안전관리실

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식약청에게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 방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은 GMO 식품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GMO 품종개발회사로부터 GMO 분석정보 및 표준품을 제출받아 GMO

품종 시험방법을 마련한 뒤에 안전성을 승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식약청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29개 GMO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가공식품에서 GMO 성분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인 ‘정성시험법’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29개 품종에 대한 시험방법을 조속히 고시해 GMO 식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 설

지역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수렁 빠져드나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경기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큰 걱정이자.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중 광주지역 산업생산은 3개월째 하락하며 1년 전에 비해 6.1%나 줄었다. 전국 산업생산이 6.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지역 실물경기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산업생산은 12.2% 늘었다. 하지만, 이는 석유화학이나 조선 등 일부 업종의 활황효과일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생산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활동 둔화는 소비침체로 이어져 6월 중 전국 소비재 판매는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1.0% 감소했다. 반면 7월 소비자 물가는 5.9%나 급등해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었다. 지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급등하는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비 감소·재고 증가로 기업부실·고용둔화가 야기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이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의 위기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규제완화, 내수진작, 생산성 향상, 노동유연성 확보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와 지역 주민도 임금인상 자제와 에너지 절약 등 경제 위기 탈출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잇단 물놀이 사고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지난달 31일 현재 29명이 물에 빠져 숨겨지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각급 학교 방학과 휴가 시즌인 7월 하순~8월 중순에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장성군 북이면 한 저수지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졌고, 28일에는 화순군 이양면 용두리 유원지에서 수영하던 학생 1명이 익사하는 등 거의 매일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전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물에 뛰어들거나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심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단순히 고무보트나 튜

브 등 놀이장비만 믿고 물놀이를 즐기다 갑자기 닥친 파도나 빠른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것이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수영하는가 하면 가족단위 피서에서 어린이를 방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가족을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31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사고예방에 안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물놀이 사고는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길 밖에 없다. ‘나 하나쯤 어찌랴’ 하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7월 소비자 물가 6%대 급등...10년來 최고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육박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이처럼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19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만에 처음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등 3%대, 4월 4.1%, 5월 4.9%로 4%대를 기록하다가 6월에 5.5%로 올라서는 등 상승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상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7.1% 급등했다. 이 역시 2001년 5월(7.1%)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4% 급등했고, 개인서비스 부문도 5.0% 올라 물가 상승에 상당폭 기여했다.

품목별로 전년 동월비 상승률을 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 돼지고기(25.4%), 쌀(4.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배추(-38.1%), 무(-43.8%) 등은 하락했다. /연합뉴스

한화, 대한생명 국제중재 승소

예보와 분쟁서 승리...상장 속도 낼 듯

대한생명 인수를 둘러싼 한화그룹과 예금보통공사의 오랜 분쟁이 한화의 승리로 끝났다.

한화그룹은 예금보통공사가 신청한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양측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장일형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 풀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부사장은

은 또 “올해 4월 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돼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통공사는 “풀옵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자문기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국제중재의 결론이 났으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국제계약에서 중재 결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100주년 기념 포스터. '빛의만경' - 김중두. 포스터에는 '100년'이라는 큰 숫자와 '1908'이라는 연도가 보이며, '우왕좌왕' 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성과 평가

광주과기원 3년연속 '우수' 등급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성과평가 결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한국화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2008년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32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시, 1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방위사업청 소관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2005년 성과평가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교과부 산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소관 한국화학연구원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세계 최고 성능의 유기물 플라 스틱 태양전지를 개발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직경 1m급 고해상도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은 미래기계시스템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필기자 camus@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독자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협부 2200-626 정 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5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